

당신의 마음이
두근거린다면

이유가 무엇이건,

청춘은 아직 거기 있다.
희망도 아직 거기 있다.

빛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의 이야기

KEPCO

2021 04 / VOL. 574

그림에도
불구하고

설렘이
남았다



KEPCO

설렘주의
FULL OF EXPECTATIONS



THEME 설렘주의

04	TREND	청춘의 바로미터 '설렘', 팬데믹 속에서도 움트는 희망
06	CULTURE	가성비의 시대 - 설렘, '재화'가 되다
08	INTERVIEW	여행이 사라졌다고 설렘도 사라지진 않는다

PEOPLE

10	길 위의 풍경	제주 & 제주전력지사
14	함께 배워요	경북지사 경영지원부 떡 만들기 체험
18	맛남의 광장	봄의 에너지를 가득 품은 주꾸미 & 꽃게
20	가족사진관	커뮤니케이션실 뉴미디어팀 주희진 차장, 인사처 인재육성실 이영언 차장 가족
24	Zoom In	첨단기술로 2030 탄소제로의 꿈에 다가선다! 제주 신재생센터

ISSUE

26	Issue Scanning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변화! 송배전용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법제화
30	알아봅시다 01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34	알아봅시다 02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6	KEPCO NEWS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 개최 외
38	테크 리포트	쇼핑의 풍경을 바꾼 '리테일 테크'
40	명화로 보는 심리학	처음의 설렘을 기억하세요?
42	방구석 인문학	냉장고의 역사로 보는 '필요'와 '소유'의 인문학

COMMUNITY

45	ON AIR
46	KEPCO 버스킹
47	간식비를 쏜다!
48	人STAR★GRAM
50	구독의 이유
51	힐링 메시지

FULL OF EXPECTATIONS

설렘주의



코로나19 이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망은

사람들을 비관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꿈꿔온 여행지로 떠나는 등
즐거운 것들은 기한 없이 유예되었고, 모두 '잠시 멈춤' 상태로 있어야 했죠.

하지만 설레는 마음까지 정체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틈새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전보다 좁아진

행동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내기도 했습니다.

설렘과 기대는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도착한 봄.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 별것 아니지만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것들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의 삶은 달라졌지만 봄의 풍경만은 어느 해와 다르지 않다. 전처럼 시끌벅적하진 않지만 팬데믹이 지나간 자리에도 조심스레 희망이 움트고 있다. 결국 우리 삶을 추동하는 건 끝없이 고개를 드는 희망과 '설레는 마음'일 것이다.

청춘의 바로미터 '설렘', 팬데믹 속에서도 움트는 희망

SPRING, 회복하는 힘

그럼에도, 어김없이, 봄은 왔다. 팬데믹의 잔혹한 파도가 휩쓸고 간 뒤, 우리의 일상은 급변했다. 마음 놓고 모임을 가지는 것이 어려워졌고, 모든 행사나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마스크는 하루도 빠짐없이 장착해야 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이제는 마스크가 없으면 오히려 허전한 느낌이 든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럼에도 봄을 향한 설렘은 변함없이 돌아왔다. 오히려 이전의 그 수많은 봄들보다 더욱 애뜻하고 절실한 느낌이다. 1년 전 봄보다는 그래도 낫겠지 하는 믿음. 올해는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단단히 한 채 조심스럽게 봄꽃 나들이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 어느 때보다 정적으로 변해버린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설렘의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좁아진 반경 내에서 즐거움을 찾다

팬데믹 이후, 나는 모든 설렘의 작은 가능성들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팬데믹 이후, 첫 번째 설렘, 나는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에 매우 민감해졌다. 벚꽃축제가 불가능해지자 길가에 핀 꽃들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하고 찬란하게 느껴졌고, 여름이 다가오자 초록으로 물드는 산과 들판의 싱그러움 속삭임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가을이면 더욱 알록달록하게 물드는 낙엽의 페스티발, 새하얀 설경 속에 눈부시게 저물어가는 노을의 아름다움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멀리 여행을 떠날 수 없으니 동네 산책만으로도 볼 수 있는 꽃과 나무들이 시시각각 보여주는 자연의 소중한 풍경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꼭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나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 꼭 화려한 축제가 시끌벅적하게 벌어져야 흥미로운 것도 아니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반경이 극도로 제한되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자연의 소담스러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게는 경이로운 축복이자 선물처럼 다가왔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포착하다

두 번째 설렘. 공식적인 일정이 줄어들든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삶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다. 그러자 새롭게 바뀐 삶의 방식들이 또 다른 설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컨대 '온라인 수업'이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과연 강연장의 생생한 열기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막상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자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직접 볼 수 있는 오프라인 강의가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온라인 강연에는 뜻밖의 장점들이 많다. 나는 20년 전에 헤어진 친구를 온라인 강연을 통해 만났다. '정여울과 함께 하는 글쓰기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강연을 개설했는데, 20년 전 나의 친구였다가 연락이 끊어진 친구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내 강의를 듣게 된 것이다. 그리운 친구를 20년 만에 만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강의, 미국이든 어디든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나 또한 강의를 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강연을 '듣는 설렘'에 빠졌다.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안 되어서, 과연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듣지 못했던 그 모든 강의를, '온라인 수업'으로 참여하니 그 모든 장애물이 일시에 해소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온라인 수업은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집에서 강연을 하니 나는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편한 복장으로, 더욱 거리낌 없이 허심탄회하게 독자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다.

잠시 멈춰선 곳에서 '자신'과 만나다

팬데믹 시대의 세 번째 설렘. 그것은 무엇보다도 '투명한 나 자신과 만나는 기쁨'이다. 지나치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는 아무리 마음 챙김에 집중해도 한계가 있다. 자꾸만 바깥세상에 현혹되고, 유행이나 대세에 민감해져 자기 자신의 진짜 마음을 돌보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내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져서 그것만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스케줄에 바빠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내가 진정으로 돌보아야 할 소중한 꿈과 인연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돈을 버는 일에 바빠 꿈을 가꾸는 일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정말 잘 있는지' 물어보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다. 그것은 멀리서 온 낯선 손님을 만나는 설렘과는 또 다른 설렘, 즉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나는 설렘이 아닐까. 누구나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갈 때 새롭게 시작하는 설렘을 간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곤 한다.

이를 넘어서고자 여러 시도를 해보기도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마음 근육 탓에 쉬이 심드렁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 더 나은 것을 향한 상상력을, 내일은 오늘보다 나를 거라는 설렘의 감정을 새삼 배워가고 있다.

우리가 더 깊고 따스한 눈으로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더 섬세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설렘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나와 타인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보살필 수 있는 따스한 시선을 회복한다면, 새로운 세계를 향한 설렘은 그 어떤 재난 앞에서도 끄떡없이 샘솟을 것이다.

Expectations

가성비의 시대 설렘,

‘재화’가 되다



모델명만 검색해도 가장 저렴한 판매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발품대신 검색품을 들어가며 소평한다. ‘호갱님’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성비’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거다. 하지만 가성비와 정반대편에도 소비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곳에서 가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부자들만 사는 동네도 아니다. 그곳을 장악한 정서는 바로 ‘설렘’이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봄이다. 코로나19 영향인지 동네 입구에 핀 어느 집 목련꽃부터 진달래, 개나리 같은 평범한 꽃들이 여느 때보다 반갑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기지개 켜듯, 사람들은 봄맞이 집안 정리에 한창이다. 어떻게 버려야 할까?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정리의 여왕 ‘곤도 마리에’가 제안한 방법이다. 대개 사람들의 봄맞이 정리법의 중요한 기준은 ‘최근 1년 내 사용 여부’다. 최근 1년 내에 사용한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동안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제품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곤도 마리에의 생각은 다르다. 집안 정리하다가 우연히 빛바랜 추억의 사진을 발견했다고 하자. 지금은 성인이 된 당신 자녀가 20년 전 놀이동산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당신 품에 안겨있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 말이다. 당신은 그 사진을 버릴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소중히 간직하며, 언젠가 내가 죽을 때 함께 묻어 달라고 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엔 반대 상황이다. 당신이 몇 달 전에 양복을 꺼내 입었다. 어느 틈엔가 뱃살이 나와 옷웃 단추가 잠기지 않는다. 외출 후 돌아와 옷걸이에 옷을 걸며, 살을 좀 빼야 할 텐데 하며 아쉬워한다. 최근 일 년 내에 입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별로 행복하지 않다. 양복이 한 벌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버리는 게 맞다고 곤도 마리에에는 주장한다. 설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장이 시켜서 한 일 - 가심비*

기업도 마찬가지다. 고객에게 설렘을 주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설렘을 주어야 고객은 구매한다. 그런데, 설렘은 이성이 아닌 감성의 영역이다. 고객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면 어떻게? 필요하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않을 것이다. 집에 선글라스가 이미 있다면 하나 더 구매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성은 그렇게 작동한다. 하지만 감성은 다르게 말한다. 그냥 사라고 한다. 혹은 진열대에 놓인 선글라스가 ‘나 좀 데려가 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한다. 구매한 순간 원가에 사로잡힌 모양이다. 이게 설렘이다. 디자인일 수도 있고, 매장 분위기 일 수도 있다. 멋진 옷차림의 판매원일 수도 있고, 그 브랜드를 만든 오너(owner)의 경영철학일 수도 있다. 우리가 ‘기능적 필요(functional needs)’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그냥 사고 싶어서 (mental wants)’ 산다. 기업이 고객을 설레게 만들어야 매출이 발생한다.

설렘을 설계하는 자가 이긴다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를 강조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어떠한가.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정보가 애플 마케팅 부사장 손에 들어간다. 그는 급하게 잡스와 미팅 시간을 잡고는, 지금 빨리 제품을 출시하지 않으면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이미 제품은 완성되었으니 시급히 포장할 박스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때 잡스의 한마디. ‘당신은 제품을 살 때, 제품을 먼저 보나? 아니면 패키지 박스를 먼저 보나?’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부사장은 얼굴만 붉힌 채 잡스의 방에서 나왔다고 한다. 잡스는 제품 디자인을 넘어, 제품 패키지 디자인까지의 완성도와 그것을 받아 볼 고객의 경험까지를 고민했던 것이다. 애플 스토어를 만들 때도 그랬다. 도심 외곽에 점포를 열었다가 망한 대형전자제품 유통매장의 사례를 모르지 않았던 잡스는 도심 한복판 ‘금싸라기땅’에 전자제품 유통매장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것도 불과 애플 제품만으로 구색을 갖추면 서 말이다. 다들 반대했지만 잡스의 생각은 달랐다. ‘애플다운’ 매장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비밀병기 지니어스 바(genius bar)를 두기로 한다. 애플 제품에 능통한 직원들이, 마치 친구처럼 자상하게 제품에 대해 알려줄 수 있도록, 잡스의 철학, 멋진 매장, 간직하고픈 충동을 일으키는 세련된 포장, 첨단지식으로 무장된 친절할 매장 직원. 설렘의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었던 게 이미 20년 전 일이다. 언젠가 될진 모르겠지만 애플카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손짓으로 차선을 바꾸고, 전면 유리창에선 영화가 상영될 거라고 한다. 이 막연한 설렘을 실현해줄 방법은 단순히 기술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특명! 소비자를 (웃게, 설레게, 두근거리게, 깜짝 놀라게) 하라

초등학교 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이 소풍 가는 날 아니었던가? 소풍 전날에는 ‘제발 비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돈을 내는 고객이 출시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출시일이 미뤄지지 않도록 바라주는 제품(또는 서비스)을 만드는 회사가 망할 리 없다. 가격이 비싸다고 안 살 리 없다. 오히려 비쌀수록 더 자랑스럽다. 제일 싼 것, 제일 많이 주는 것을 사는 ‘가성비’ 고객이 있는 한편 ‘내 심장을 떨리게 하는’ 것을 고대하는 ‘가심비’ 고객도 있다. ‘내가 좋으니까 플렉스(Flex)’를 외치는 ‘나심비’** 고객도 공존한다. 이들 덕에 가격 저항마저 사라지니 제품만 확실하다면 경쟁 자체가 사라진다. 크건 작건 기업이 설렘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가심비 :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일컫는 말이다. 가격 대비 성능비를 의미하는 ‘가성비’의 반대에 있는 신조어.

**나심비 : ‘가심비’를 넘어 재화나 서비스를 누리는 ‘나’의 만족도에 초점이 맞춰진 신조어.

여행이 사라졌다고 설렘도 사라지진 않는다

<여행준비의 기술> 저자 박재영



Trip

팬데믹 시대, 직장인들은 연중 몇 번 없는 여행의 설렘까지 잃어버렸다. 이 같은 우울한 여행자들을 위해 도서 <여행준비의 기술>에서는 일상에서 설렘을 찾는 여행 준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어떤 설렘을 발견할 수 있을지 '프로 여행준비러' 박재영 작가를 만나 보았다.



잃어버린 '여행' 대신 '여행 준비'로 설렘 즐기기

"모든 준비 중 가장 즐거운 건 여행 준비입니다. 소풍날보다 전날이 더 설레듯, 여행도 준비할 때 더 설레고 즐겁잖아요. 여행 준비는 여행을 풍성하게 만들지만, 더 나아가 추억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시기지만, 언제든 할 수 있는 여행 준비로 설렘을 누리시길 바라며 책을 썼습니다."

마음껏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이 시기에 박재영 작가는 저서 <여행준비의 기술>을 통해 여행 '준비'에 대해 이야기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여행이 모두 무산되면서 저자 역시 우울했지만, 자신의 취미는 여행이 아니라 여행 준비라는 것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모두가 여행을 멈춘 이 시기에 여행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10년 전부터 구상했던 이 책을 실행에 옮겼다.

"저는 가고 싶은 곳이나 새로운 곳을 발견하면 정보를 찾아보고, 구글 지도에서 그 위치에 별을 찍어 놓아요. 또 그 주변으로 가볼 만한 곳을 더 찾아보면서 저만의 지도를 만듭니다. 가장 설렘 때는 가고 싶은 곳이 새로 생겨서 찾아봤는데 몇 년 전에 찍어 놓은 별을 다시 찍게 될 때입니다. 그곳에 갈 확률이, 찍어 놓은 별을 딸 확률이 높아진 거니까요." 여행 준비는 이처럼 꼭 당장 떠나지 않아도,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즐겁다. 때문에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여행 준비를 취미로 가진 사람의 특성이자 특권이라는 박재영 작가. 그의 지론처럼 여행은 1년에 두세 번밖에 못가지만, 여행 준비는 1년 내내 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시기에 더욱 필요한 취미인 듯하다.

지금이야말로 여행 '준비'의 적기

그렇다면, 박재영 작가가 추천하는 '여행 준비의 기술'은 무엇일까. 먼저 여행의 명분을 만들면 여행이 더 즐거워진다. 여행 적금을 들거나 결혼기념일 등 명분을 만들면 보다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다. 다음은 '구글 지도'에 별 찍기. 책을 읽다가, TV를 보다가 관심이 가는 장소가 나타날 때마다 별을 찍다 보면 많이 찍힌 곳이 바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다. 세 번째는 여행지의 스토리, 문화를 알면 여행이 훨씬 재밌다. 지금처럼 발이 묶인 시기에 관심이 가는 지역을 다룬 다큐든 책이든 열심히 보고 읽어 둔다면, 그 자체도 즐거운 과정이 될 테고, 나중에 실제로 떠나게 될 때 훨씬 풍성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네 번째는 동행자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가고 싶은 장소부터 음식, 하고 싶은 것 등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늘고, 그런 면에서 여행 준비는 대화에도 중요한 기술이 된다. 마지막으로 리스트 만들기. '정말 가보고 싶은 도시 다섯 곳', '안 먹어본 음식 다섯 가지', '드라이브하고 싶은 다섯 곳' 등 리스트를 만들면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나를 위한 최고의 여행 상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하는 것이다.

"여행 준비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잘 맞는 여행을 만들기 위해 더 조사하고 준비하며 자신에 대해 알게 되죠."

여행 1의 의식(전지율리스트 모경의모전문비미디어 <영남의사> 편집주간)으로 일하며 웨어캐스트 'G와 J'의 제작을 맡고 있다. 2004년 <여행준비의 기술>을 출간했다.



그러나 이처럼 여행 준비를 즐기는 그에게도 괴로운 시간은 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의 순간이다. 때문에 여행 준비를 잘하는 기술 중 하나는 '버리기'라고 강조한다. 가고 싶은 곳은 여러 곳이고 시간은 한정될 때 선택이 힘들지만, 한 장소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부분 가지 않는다. 대신 그 시간에 누릴 수 있는 한가로운 쇼핑, 산책을 택한다. 누구에게나 최고의 만족을 주는 여행지는 없으므로 다 버리고 '다시 꿈꾸면 된다'고 단언한다.

일상을 여행처럼, 인생은 관광객 모드로

"저는 20년 동안 스페인 마요르카에 가는 것을 꿈꿨어요. 신혼 시절 아내와 함께 본 연극의 배경지였는데, 결혼 20주년 되는 해에 가기로 했죠. 그때부터 틈만 나면 정보를 찾았고 호텔부터 맛집까지 다 별을 찍어 놓았어요.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올해 마요르카에 갔을 겁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갔을 때, 설렘은 극대화되죠."

여행의 설렘이 극대화되는 또 다른 방법은 '책 읽기'다. 지리적 묘사가 많이 나오는 소설, 장소에 대한 서술이 많이 나오는 책을 읽으면 읽는 내내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쌓이며 설렘이 더욱 커진다. 10년 동안 노르웨이 여행을 꿈꾸고 결국 떠나게 했던 제일 큰 이유도 바로 노르웨이 배경의 소설 때문이었다.

"우리의 다음 여행은 누구나 특별한 여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지 지금부터 준비하면 어떨까요. 더불어 이 책을 읽으며 '코로나 블루'를 누그러뜨리고 소풍 전날 같은 설렘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인생은 관광객 모드로'. 책에 사인을 해줄 때 그가 즐겨 쓰는 이 문장처럼, 팍팍한 일상도 여행자의 마음으로 지내면 좀 더 재미있고, 설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제주특별자치도 JEJU

제주 & 제주전력지사

제주의 봄은
찬란하다

햇살이 눈부시게 좋다. 흐드러진 벚꽃과 해사한 유채꽃이
꿈결 같은 봄빛으로 천지를 채운다.
시린 겨울의 잔영도, 코로나가 가져다준 우울도
제주의 황홀한 풍경 속으로 녹아든다.
#녹산로 #벚꽃과 유채

4.3의 역사를
보듬는
제주의 봄

그날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을까.
온 섬이 피로 물들던 그 날이 이토록 찬란한 날이었다니...
따사로운 햇살에 보드랍게 봄물 지핀 제주 들녘과 바다가
너무 아픈 역사를 쓰다듬는 신의 손길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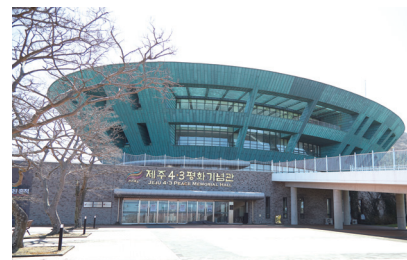
제주 4.3평화기념관, 4.3평화공원

1947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사망한 것이 발단이 돼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는 제주도민과 미군정, 경찰, 서북청년단 사이의 대립이 증폭됐다. 1948년 4월 3일 미군 철수, 단독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는 남로당 무장대의 봉기와 이에 대한 미군정의 강경 진압이 이어졌고, 1948년 11월 17일 제주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계속된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2만~3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제주도도민들이 희생됐다.

4.3의 아픈 역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제주 4.3평화기념관은 4.3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시관을 꾸며놓았다.

약 11만여 평에 이르는 제주 4.3평화공원은 4.3 희생자로 결정된 14,256명의 이름과 당시 연령, 사망일을 새겨 넣은 각명비가 도열해있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위패 봉안실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흐드러진 봄꽃 명소를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4월 제주에서 꼭 한번 들러야 할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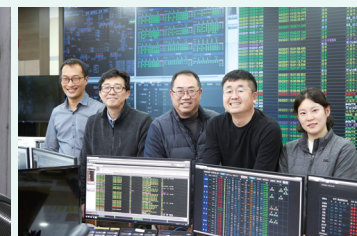
제주의
전력망을

펼떡이게
한다!
제주전력지사



제주 섬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혈관처럼 구석구석 뻗어 있는 전력망을 책임지는 주역들이 모인 곳이 바로 제주전력지사이다. 국제적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며, 특히 국제회의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기에 특별히 안정적 전력공급이 요구된다. Carbon Free Island 2030 정책 추진에 따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급증해 제주 전체 전력 설비 설비용량의 45%를 점유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제주전력지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제주는 관광지로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녔지만 태풍의 길목에 자리해 1년에 서너 번 이상 태풍이 내습하고, 재해급 기상특보가 빈발하는 등 전력망을 관리, 운영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무려 8개의 태풍이 제주지역을 관통했다. 하지만 제주전력지사는 태풍 내습 전 철저한 설비 점검과

선로 인접 수목과 같은 설비고장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태풍에 의한 송전선로 고장이 한 건도 없도록 차단하였다. 그뿐인가. 네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송변전 설비들은 염해에 노출되어 부식이 빨리 진행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주전력지사는 설비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설비를 옥내화하는 설비개선으로 사내 제안심사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사전점검과 적기 설비보강으로 취약한 자연 여건을 극복해나가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의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사람 살기 좋은 섬으로 만드는 숨은 주역들의 하루하루는 이처럼 분주하기만 하다. 제주에서 만나는 봄이 아름다운 또 하나의 이유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했고, 사진 촬영 시에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경북지사 경영지원부
떡 만들기 체험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 수칙을 지키며 활동을 진행했고, 사진 촬영 시에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달콤하고 즐거하게

화합을 빛어내다

쿵!쿵!쿵! 예로부터 좋은 일, 축하할 일이 있으면 마을에 떡메 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춥고 지난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을 맞아, 경북지사 경영지원부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송연수, 정주은, 김동현, 최수연 사원이 동료들을 위한 맛있는 떡 만들기 체험에 나섰다.



알록달록 무지개 바람떡과 떡케이크 만들기

낙동강변을 따라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발하는 계절, 4월이다. 새로운 계절을 맞아, 봄꽃처럼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한 경북지사 경영지원부 젊은 피 4인방이 특별한 봄나들이에 나섰다. 화사한 꽃처럼 알록달록 무지개 바람떡과 순백의 하얀 백설기 떡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떡 공방 체험에 나선 것이다.

“저희 경영지원부는 부서 이름처럼 2차 사업소를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총무, 노무, 회계, 계약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평소 업무가 바빠 회사에서는 주로 업무 이야기만 나누는데요, 사무실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동료들과 특별한 추억도 쌓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오늘 체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총 28명의 경영지원부 부서원들 가운데 같은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송연수, 정주은, 김동현, 최수연 사원은 이런 특별한 체험을 계기로 업무적으로도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정주은, 김동현 사원은 바람떡을, 송연수, 최수연 사원은 떡케이크를 만들기로 조를 나누고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한 번도 떡을 만들어본 적이 없다는 직원들은 과연 내가 떡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특히 오늘 체험의 청일점 김동현 사원은 맛은 둘째 치고 손재주가 없어서 모양도 제대로 내지 못할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떡은 처음 만들어 봐요. 요즘에는 명절에도 떡을 다 사다 먹으니깐 집에서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입니다.”

직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떡 만들기가 시작됐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가장 처음으로 바람떡의 소를 만들기로 한다. 바람떡 안에 들어갈 소를 적당한 크기로 뭉쳐 빚어주는 것이다. 달달한 앙금에 아몬드를 넣어 고소함까지 더한 소를 보니 벌써부터 군침이 돈다. 정주은, 김동현 사원은 소를 빚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걸 보니 평소 경영지원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다른 부서원들과 함께 오지 못해 아쉬워요. 저희 부서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오늘 만든 떡과 케이크도 저희 부서원들과 나눠먹으려고요. 동료들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정주은 사원은 보기 좋고 맛도 좋은 떡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대접할 생각에 더욱 정성을 쏟는다.



이 떡을
나눠먹고
올해 저희
경영지원부에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경영지원부
최수연 사원



오늘 만든 떡과
케이크도 저희
부서원들과
나눠먹으려고요.

경영지원부
정주는 사원



떡은 처음
만들어 봐요.
제대로 빚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경영지원부
김동현 사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정주는, 김동현 사원이 소를 빚는 동안 송연수, 최수연 사원은 떡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백설기를 찌기로 한다. 우선 물을 적당량 넣으며 쌀가루를 손으로 잘 비벼준 후 체에 친다. 이후 걸러진 쌀가루에 설탕을 넣고 모양을 잡기 위한 원형틀에 1/3가량 채운다. 그 위에 짬을 넣고 다시 쌀가루로 덮은 후 틀을 제거한다. 아직 쌀가루가 묻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 잡은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단한 과정 같지만 쉽지가 않네요. 쌀가루가 무너질까 봐 정말 조심스러워요.” 세심한 손길로 틀을 빼보지만 결국 송연수 사원의 떡케이크 한쪽이 무너져 모양이 찌그러졌다. 강사는 상심하는 송연수 사원에게 어차피 위에 장식을 하면 이 정도 실수는 커버할 수 있다며 위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 찜기에 25분간 찌면 떡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원형의 백설기가 완성된다.

한편, 그동안 소를 모두 완성한 정주는, 김동현 사원은 떡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반죽이 완성되면 6등분 한 후 각 반죽에 색소를 섞어 알록달록 무지개 색을 입힌다. 강사의 시범에 따라 직원들이 손에 기름을 바르고 식용색소를 넣어 주물러주니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색 반죽이 완성됐다. 새하얀 떡이 무지개 빛깔로 변할 때마다 직원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이제 무지개색 반죽에 소를 넣어 바람떡을 완성할 차례. 밀대로 반죽을 얇게 밀고 빚어놓은 소를 하나 넣어 접은 후 원형틀 한쪽으로 찍어내 반달모양 바람떡을 완성한다.

“정말 예뻐요. 평소 하얀색이나 쪽색 바람떡밖에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색빛깔의 떡을 보니 더욱 먹음직스러워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야무진 손길로 떡을 빚는 정주는 사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떡 케이크가 완성되길 기다리는 동안 송연수, 최수연 사원도 함께 바람떡을 빚었다. 넷이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떡을 빚는 모습이 마치 명절에 만난 사이좋은 가족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툰 손길이 익숙해지고 점점 빠르게 떡이 완성됐다. 그 와중에 김동현 사원이 개성을 담아 특별한 모양의 떡을 만들고,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풍성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오색 빛깔 바람떡이 쟁반 한가득 담겼다.

“생각보다 떡이 예쁘게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지금껏 제가 먹어본 떡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동료들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직접 만든 떡을 한입 가득 베어 문 송연수 사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하다.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지금껏 제가
먹어본 떡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경영지원부
송연수 사원

존댓돈 팀워크로 완성한 동료들을 위한 떡 선물

바람떡을 모두 빚은 후, 이제 떡케이크를 완성할 차례다. 찜기에서 갓 나온 동그란 백설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다. 무언가 더하지 않아도 새하얀 백설기 자체로 무척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흰색 앙금을 백설기 떡 위에 펴 바른 후 개성대로 장식을 할 차례. 사탕, 초콜릿, 슈가 파우더, 크런치 등 다양색의 데코레이션 재료가 직원들 앞에 놓였다.

“하얀 백설기 위에 앙금을 펴 바른 것만으로도 무척 예쁘고 먹음직스러운데 장식을 더해 모양을 망칠까 두려워요. 모든 과정 중에서 마지막 장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갈팡질팡하는 송연수, 최수연 사원을 위해 정주는, 김동현 사원 또한 어떻게 장식하면 케이크가 더욱 예쁘고 먹음직스러울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했다. 동글동글한 화이트 초콜릿으로 테두리를 둘러보기도 하고, 말린 과일을 올리기도 하고, 글씨를 새기기도 하며 마음껏 개성을 표현한 결과 만족스러운 모양의 케이크가 완성됐다.

마지막으로, 무지개 바람떡은 고운 색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떡케이크는 예쁜 상자에 넣어 리본까지 묶으니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고급스러운 선물이 완성됐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함께 떡을 만들면서 동료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완성된 떡은 저희 경영지원부 동료들과 함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떡을 나눠먹고 올해 저희 경영지원부에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떡처럼 존댓돈 끈끈한 동료애를 과시하며 화기에애한 팀워크를 뽐낸 경영지원부 4인방에게 오늘 체험이 두고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



봄의
에너지를

가득 품은
주꾸미
&
꽃게

주꾸미

글 장은경 사진 김보라
자료제공 보령지사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선 계절을 잃어버리기 일쑤다. 지루하고 지친 일상에 봄을 소환하고 싶다면 보령의 주꾸미와 꽃게를 식탁 위로 불러들이자. 마술처럼 몸과 마음에 봄의 에너지가 지필 것이다.



꽃게



보령에서 가면 잡쉬봐~ 보령9미(味)

보령은 먹거리가 풍성한데 그 중 보령 9미(味)는 보령에서 꼭 맛봐야 할 먹거리다. 그 보령 9미 중 하나인 주꾸미는 3~4월이 제철이다. 필수 아미노산은 물론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한 주꾸미는 이맘때 산란을 앞두고 있어 영양분이 가장 많다. 봄철 보양식으로 으뜸인 셈.

고슬고슬 밥알 같은 주꾸미알이 소복, 보약 주꾸미

보령의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주꾸미는 싱싱한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샤프샤브로 많이 먹는다.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주꾸미의 식감은 말이 필요 없을 듯하다. 이미 다 아는 그 맛. 하지만 고슬고슬한 쌀밥처럼 생긴 알을 품고 있는 암주꾸미라면 말이 다르다. 봄철에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분들이시다. 머리 중앙을 가위로 잘라 익히면 쌀알같이 생긴 하얀 알들이 뭉쳐져 쌀밥처럼 소복하게 피어난다. 맛도 영양없이 구수한 쌀밥 맛이다. 먹물이 풀어져 나온 건강한 국물은 속을 확 풀어주어 몸을 개운하게 한다. 여기에 매콤달콤하고 알싸한 감칠맛으로 잃었던 미각을 되살리는 주꾸미 볶음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보약 같은 봄날 제철 밥상이 완성된다.

알이 딱 찬 꽃게의 일갈 “너들이 게 맛을 알아?!”

꽃게 역시 보령 9미로 꼽히는 봄철 별미다. 4월이면 꽃게도 알을 품는다. 꽃게는 9~10월이 제철이지만 암게는 4월부터 6월까지 알을

품기 때문에 이 시기도 제철로 꼽는다. 수게와 암게는 배 딱지의 모양으로 구별한다. 배 딱지가 뽀족하면 수게이고, 넓적하면 암게이다. 알이 딱 찬 암꽃게는 배 딱지가 불그스름하고, 양옆 꽃 모양의 가시 안쪽이 불그스레한 빛을 띤다. 꽃게에도 타우린이 풍부하며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활력 증진을 돕는 아르지닌 성분이 풍부해 간과 눈 건강에 좋고 봄철 피로회복에 제격이다.

보령에서 꽃게를 즐기는 방법으로는 싱싱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꽃게찜을 추천한다. 주황빛이 도는 영롱한 알과 싱싱한 꽃게 속살의 달고 고소한 참맛을 제대로 느껴보아야 어디 가서 “게 맛을 줘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봄철 미각의 종합선물세트, 대천항수산시장

대천연안여객터미널 근처에 있는 대천항수산시장에 가면 주꾸미와 꽃게뿐 아니라 광어, 소라, 멍게, 키조개 등 다양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1층에서 해산물을 고르고 2층 식당으로 올라가면 구입한 해산물로 샤프샤브, 찜 등으로 바로 조리해 상을 차려준다. 대천항수산시장이 종합선물세트와 같다면 무창포항은 주꾸미, 오천항은 야들야들한 키조개로 유명하다.

봄철 나른하고 지치는 한전인들의 몸에 싱싱한 봄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다면 보령에 가서 주꾸미와 꽃게를 맞이하는 게 좋다.

보령지사와 대천항수산시장의 인연

보령지사는 보령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주저 없이 대천항수산시장을 꼽는다. 어선이 드나드는 항구와 푸르게 펼쳐진 바다를 조망하며 다양한 보령의 제철 해산물을 싱싱함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이뿐 아니라 보령지사는 수산시장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다. 수산시장은 대용량고객으로 분류되지만 변압기 공동이용고객이 92호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관리주체인 보령수산업협동조합과 협의를 하여 분전반 보수공사를 시행해 주는 등 안정적인 전기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령지사는 이 밖에도 지역특산물을 구입해 복지단체에 전달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업무협약으로 생필품 등의 물품을 후원하는가 하면, 보령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KEPCO 에너지 스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훈훈한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보령지사가 추천하는 맛집 Best 5

- | | | |
|--------------------|----------------------|---------|
| 해녀횃집 041-935-9787 | 보령시 해수육장4길 130 | 대천해수육장 |
| 풍미꽃게탕 041-934-6442 | 보령시 해수육장4길 74 | 대천해수육장 |
| 재경호횃집 041-936-3450 |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2길 16 | 무창포해수육장 |
| 청해회수산 041-934-0480 |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782-16 | 오천항 |
| 대영횃집 041-932-2989 |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781-17 | 오천항 |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했고, 사진 촬영 시에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소통과 배려로 함께 쓰는 행복 다이어리

커뮤니케이션실 뉴미디어팀 주희진 차장, 인사처 인재육성실 이영언 차장 가족



Happiness Diary

밥 먹다 뜬금 프리포즈? 쌍방 프리포즈!

호기심 가득한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배꼽 인사를 하던 로건(4세)이가 금세 스튜디오 안을 우다다다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까르륵” 텐션 높은 웃음소리로 공간을 채우는 로건이를 보며 주희진 차장과 이영언 차장의 얼굴에도 똑같이 달은 웃음이 걸려 있다. 분위기와 웃음마저 꼭 닮은 이들은 2013년 입사 동기로서 처음 만났다. 성실하지만 웬지 다가가기 힘들 것 같았다는 주희진 차장의 남편에 대한 첫인상에 비해 이영언 차장의 출발은 좀 더 ‘그린 라이트’였다.

“처음 봤을 때 우리 회사에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었나 싶었어요. 동기들 사이에서 아내에 대해 괜찮은 친구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좋았던 첫인상도 남아서 계속 관심이 갔죠.”

작게 싹뻗던 관심과 호감이 본격적으로 개화한 것은 2015년 1월, 충북 괴산에 근무하던 이 차장이 경남 창원에는 근무하던 주 차장을 찾아가면서 시작됐다.

“여행을 온다면서 밥 한번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밥만 열심히 먹더니 갑자기 ‘밥 한 그릇 더 먹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때, ‘아 진짜 밥 먹으러 왔구나’ 생각했죠.”

주희진 차장이 생생하게 기억을 떠올린 그 날, 이 차장은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비슷해서 아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고 한다. 이후 원거리 연애 끝에 2016년 9월 결혼에 이르렀다.

입사 동기로서 처음 만나 원거리 연애 끝에 사내 부부가 된 주희진, 이영언 차장. 애교 많은 네 살배기 아들 로건이와 매일 출퇴근을 같이하며 가족만의 행복 다이어리를 쓰고 있다. 막힘없는 소통과 배려의 기술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이들 가족의 화사한 봄날을 가족사진에 담았다.





Love Family



“주말마다 창원으로 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돌아올 때마다 점점 헤어지는 게 더 아쉽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죠.”

이들의 재미있는 포인트는 밥 먹다가 맺어진 첫 인연이 프러포즈까지 한결같았다는 점이다.

“하루 종일 데이트 하면서 분위기 좋은 장소도 많았는데 하필 마지막에 밥 먹다가 불쑥 ‘결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반지를 건넬 좋은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상황이 조금씩 애매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이다 싶어서 그냥 했다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잘 통하는 부부답게 남편이 고민하며 준비한 마음을 헤아린 주 차장. 고마움을 담아 역으로 프로포즈를 해 이 차장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새로운 도전, 든든한 응원

주희진 차장에게 올해는 변화가 많은 해다. 올 초 승진에 이어 커뮤니케이션실로 자리를 옮겨 페이스북과 블로그 전기사랑기자단을 관리하는 소셜 미디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페이스북은 회사 주요 경영현안, 신재생에너지 등 관심 분야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채널이라면, 블로그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기사랑기자단이 참신한 시각으로 회사에 대해 홍보하는 소통메신저로 참여하고 있다.

“회사의 어떤 면을 홍보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기획하려니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소식을 비롯해 전사적인 지식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콘텐츠에서 한전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브랜딩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맡은 업무인 만큼 공부할 것도 많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창의적인 기획을 할 수 있어서 좋으며 도전 의욕을 불태우는 모습이다. 이처럼 주희진 차장이 사외 소통 채널을 맡고 있다면, 이영언 차장은 사내 소통에 기반을 둔 직원 대상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평가 등의 업무 담당이다. 해외 관련 부서 직원들을 위한 고급 과정부터 일반 직원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만족도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가발을 쓰고 우스꽝스러운 컨셉으로 사내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그날 방송이 끝나자마자 ‘벌써 퇴사냐’ 등등 동료들로부터 쪽지가 엄청 쏟아졌죠.”

올해는 AI를 활용해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 수준에 맞는 과정들을 추천, 각자 다른 커리큘럼으로 최적의 학습효과를 주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개선하며 더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 차장, 회사를 더 잘 홍보하기 위한 소통을 고민하는 주 차장. “잘하고 있다”며 신뢰 가득한 눈빛과 격려로 서로에게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이들의 올해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중이다.



늘 지금처럼 달달한 팀워크

결혼 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로건이다. 애교가 많은 로건이 때문에 노는 모습을 봐도 뿌듯하고 퇴근할 때 자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다고. 로건이는 사내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등원은 아빠와 함께, 하원은 엄마와 함께하며 온 가족이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렇듯 둘에서 셋이 되면서 행복도 더욱 커졌지만, 가끔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민을 피하기 어려운 일도 맞닥뜨리게 된다.

“지난주에 로건이가 인후염 때문에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입원을 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고 오전 반차 내고, 제가 오후 반차를 내고 병상을 지켰죠. 이렇게 고열인 적은 처음이어서 더 당황스럽고, 부모님들이 다 멀리 계시니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워 난감했어요. 그래도 같은 회사라 서로 휴가 스케줄 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서 대처할 수 있었죠”

이제는 다시 건강한 에너지이저로 돌아온 로건이와 함께 가족사진 촬영에 나서게 되어 더 좋다는 이들 가족. 로건이 둘 이후로는 가족사진을 남긴 적이 없어서 보다 특별한 기념이 될 것 같다는 이들의 함박웃음이 봄꽃처럼 만개한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후에도 늘 한결같은 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또 제가 피곤한 것보다는 본인이 좀 힘든 게 낫다며 항상 앞서서 배려해주는 점이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지금처럼만 지내면 좋겠어요.”

둘이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주희진 차장에 이어 이영언 차장도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소망을 더한다.

“이런 아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좋아요. 제가 회사 일에 좀 더 집중해서 집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도 있는데 아이들 보라 집안 챙기느라 힘들 텐데도 싫은 소리 없이 희생하는 모습이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죠.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며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삽시다!”

“그럽시다!”

서로 너무 잘 맞아서 마치 한 팀 같다는 이들 부부의 달달한 행복 다이어리는 바로 막힘없는 소통과 서로를 생각하는 배려에서 출발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했고, 사진 촬영 시에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첨단기술로

2030 탄소제로의 꿈에

다가선다! 제주 신재생센터

Carbon free Island

천혜의 자연을 품은 제주도는 Carbon Free Island를 표방하며 신재생발전으로의 에너지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발전에도 약점이 있으니, 바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다. 즉 신재생 발전량이 증가할수록 전력 계통은 불안정해지는 것. 제주 신재생센터는 첨단 데이터사이언스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주계통을 안정화하라는 특명을 띠고 제주에 문을 열었다.



제주공항에서 차로 20분 정도 달려 도착한 신재생센터는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2층 건물이다. 바로 옆에는 대규모 ESS 설비들이 펼쳐져 있다. 1층에 자리한 컨트롤룸에 들어서니 전면에 제주도 전역의 계통도와 태양광, 풍력의 다양한 데이터가 거대한 그래픽으로 펼쳐진다. 이곳이 바로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데이터사이언스 기술로 신재생발전의 불안정성 해소한다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종합 감시·운영하는 '제주 신재생센터'가 지난해 12월 9일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되고 있다. 제주 신재생센터는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든다는 CFI(Carbon Free Island) 정책 추진에 따라 2030년 약 4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전력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 지상 2층, 204평 규모로 구축된 국내 최초 전용 센터이다.

주요 기능은 신재생에너지 출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운전 특성을 분석하는 감시분석 기능,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출력을 사전에 예측하여 전력 계통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출력예측기능, 신재생에너지 출력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안전도 해석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 신재생센터 출력예측 시스템은 풍속, 온도, 습도, 일사량 등의 기상 데이터와 변전소에서 받은 전력 데이터에 데이터사이언스 분석기법을 활용해 신재생 발전량을 예측하며, 태양광 발전량·풍력 발전량 별로, 단기·중기·장기로 예측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신재생발전의 예측 정확도는 약 90% 수준이며 앞으로 출력예측의 정확도를 95%까지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력 계통의 안정성이 하락하기에 신재생발전을 수용하는 한계치가 존재한다. 안전도 해석기능은 제주계통의 신재생에너지 안전도를 분석해 수용한계용량을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량을 실시간으로 산정하고 이를 계통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협업으로 완성한 국내 최초 신재생 발전량 예측·분석 시스템

기존에도 지역별 태양광발전의 설비 용량과 발전량 정보를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시스템은 있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을 예측하여 이를 전력 계통 안정성 유지에 활용하는 시스템은 제주 신재생센터가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이와 같은 출력예측과 안정성 분석을 위해 기상 데이터, 한전의 송변전운영시스템(SCADA), 배전운영시스템(DAS) 등 서로 다른 특성의 시스템을 연계해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했다. 이를 위해 전력연구원뿐 아니라 계통계획처, 송변전운영처, 안전보안처, 제주지역본부 등 다양한 사내부서가 협업을 이루어 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다.

계통보강 비용 절감은 물론 계통 안정에도 일조할 전망

"본 시스템은 2020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제주계통에 적용돼 안정적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시스템 운영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이 향상되어 2025년까지 약 250억 원의 계통보강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육지계통 신재생발전 지역 관제시스템 구축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개발부터 운영까지 담당해온 전력연구원 융복합프로젝트연구소 신재생연계팀 최순호 선임연구원은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이처럼 덧붙인다.

앞으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든든히 뒷받침할 제주 신재생센터의 활약을 기대해볼 일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했고, 사진 촬영 시에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변화! 송배전용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법제화

글 _ 장성익 기술품질처 전기설비정기검사추진T/F 대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우리 회사가 관리주체로서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과 현장 적용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살펴본다.



Periodic Inspection

2018년 6월 제천복합건물, 밀양병원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설비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전기설비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던 정기검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해 발전설비,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그리고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해왔지만 송·배전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설비는 정기검사에서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회사의 정기검사 수행이 법제화된 것이다.

제,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제도는 2021년 4월 1일부터 전기사업법 제65조의 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에는 송·배전사업자가 관리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과, 자체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정기검사가 법제화됨에 따라 대상 설비는 반드시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와 부적합 설비에 대한 조치계획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즉, 기존의 순시, 점검, 진단의 경우 설비의 중요도 및 부하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과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었지만, 정기검사 대상 설비는 반드시 정해진 주기에 따라 매년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기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회사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전기설비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함으로써 설비 고장률의 감소 및 설비 안정성이 강화되며, 배전전기원의 직영 검사 시행에 따라 설비관리 및 검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매년 1월 31까지 검사결과와 조치계획 보고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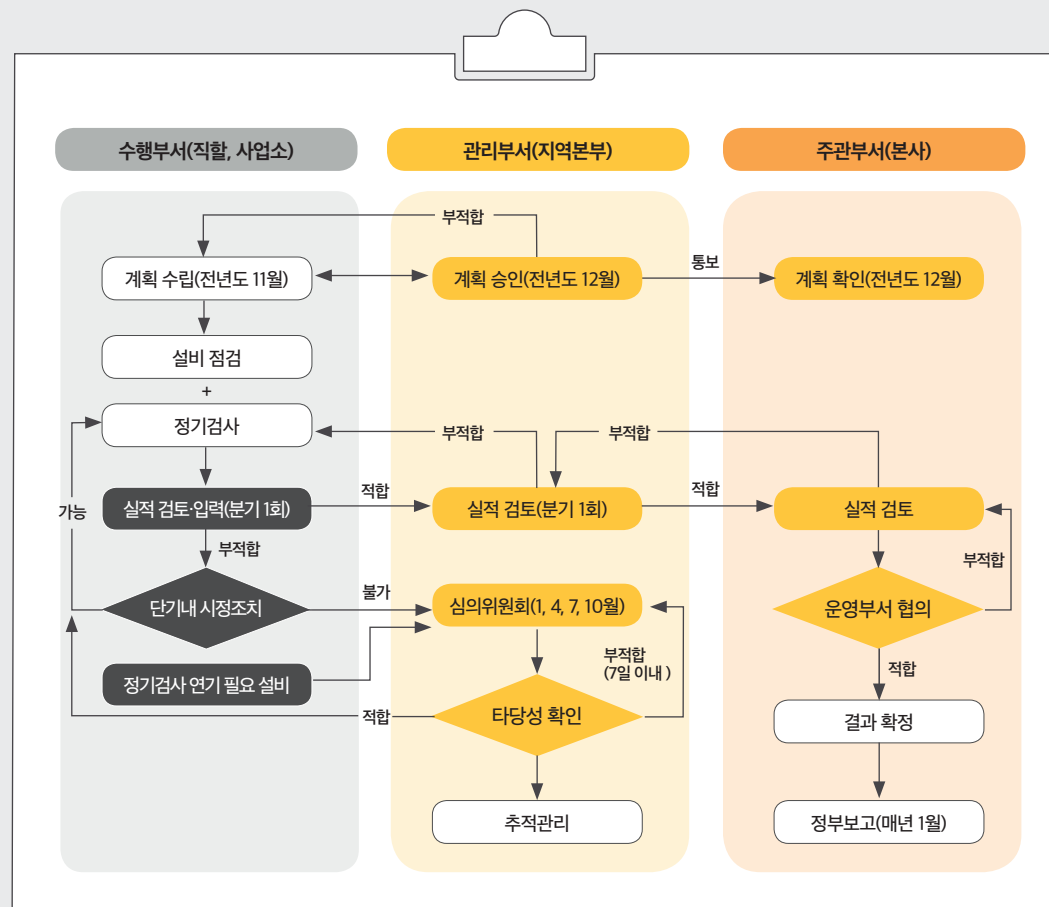
그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과 정기검사지침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전기사업법의 법적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술품질처 전기설비 정기검사TF에서는 산업부와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여러 성과 중 하나로 정부 법령인 고시나 훈령으로 정해지는 세부 규제들을 시행규칙을 통해 한전 자체적으로 검사항목과 검사절차 등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검사 대상과 검사 주기 선정 시 현재 한전에서 시행 중인 유지보수 점검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설비별 중요도 및 인력보유 현황을 고려한 검사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기검사 법적 시행에 따른 과투자를 방지하고 현실성 있는 정기검사지침을 수립하였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지침 중 [검사자의 자격] 및 [정기검사 대상, 주기, 방법]

구분	검사 주기	국가자격	직급
송·변전	3년		
ESS	1년		
HVDC	2년	중급	3
해저케이블	2년		
FACTS	2년		
공중배전	4년	초급	5
지중배전	4년	중급	5
구조물	1~3년	중급	4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토목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자격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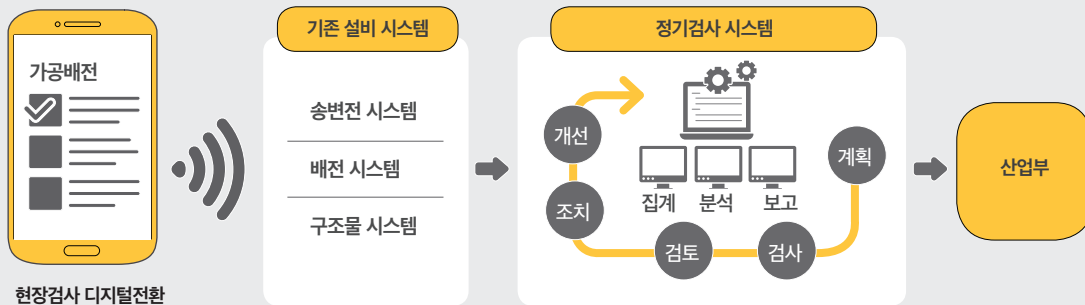
송·변전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행에 따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검 중 설비 전체를 상세히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기 검사화 하였다. 또한, 정기검사의 계획 수립과 검사 결과등록은 기존에 운영 중인 송·변전 통합설비관리시스템(STOM)을 통해 진행된다. 배전 분야는 저압 설비를 제외한 특고압 전 설비가 정기검사 대상이며, 공중배전은 초급기술자 자격을 가진 5직급 이상, 지중배전은 중급기술자 자격을 가진 5직급 이상 직원이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점검과 검사를 배전전기원이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토목구조물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은 송전 및 배전 전력구 구조물이며, 주기는 구조물의 상태등급에 따라 A등급은 3년, B·C등급은 2년, D·E등급은 1년이다. D·E등급의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송전 전력구는 구조물통합관리시스템(CSTM)에, 배전 전력구는 영업배전시스템에 검사계획 및 결과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기검사시스템에 연계된다.



정기검사 업무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검사 시행, 검사 결과등록, 부적합 설비에 대한 후속 조치, 검사 결과의 타당성 심의,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지역본부 내 수행부서(설비운영부서)에서 전년도 11월에 검사계획을 수립 후 관리부서(지역본부)에서 승인하며, 승인된 검사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만약 부적합 설비 중 정부 보고 시점까지 조치가 어려운 설비가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주관부서(본사)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도의 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1년간의 정기검사 절차를 매듭짓게 된다. 단, 2021년의 경우 4월 1일부터 정기검사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4월에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하면 된다.

정기검사 시스템



<http://pisys.kepco.co.kr>

기술품질처에서는 정기검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설비별 운영시스템(STOM, 영배2.0(4.0), 구조물통합관리시스템(CSTM))에 정기검사 계획과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기검사 시스템에 연계되어 정부 보고용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배전설비 분야에서는 모바일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사자가 태블릿을 활용하여 검사 대상 설비의 상태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검사 결과까지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검사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을 통해 검사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인력 Pool을 구성하였으며, 정기검사에 대한 분야별 지식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자료실을 개설하였다.

e러닝, 순회교육 등 현장소통으로 정기검사 제도 정착 지원할 터

올해는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다양한 질문들과 현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기술품질처에서는 3월부터 분야별 e-러닝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정기검사 실무자 교육을 통해 정기검사 절차와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본부별 사업소 순회 교육을 통해 정기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소통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향후 AMS(자산관리시스템)와 정기검사를 연동하여 현재 Time Base로 운영 중인 검사 주기에서 설비의 상태를 고려한 Condition Base의 검사 주기로 변경하여 정기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는 정기검사 기술개발 및 과학화를 위해 공중설비의 경우 드론 및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무인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중 설비의 경우 열, 가스, 충격 센서(IO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설비 유지관리와 검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KEPCO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Q&A

- Q.** 정기검사 시행이 21년 4월입니다. 시행 초기년도 검사계획은?

A. 올해 검사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은 1분기가 제외되나 되도록 75% 이상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합니다. 2022년부터 검사 주기 내 전 설비를 검사하도록 수량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21. 4월 : 연간 계획 수립 및 시험운영(교육)
 - '21. 5월 : 전기설비 정기검사 본격 수행
- Q.** 설비고장 등 사고 발생 시 검사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검사를 시행한 설비의 고장 발생 시 검사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에는 검사의 시행 여부에 대한 벌금 부과 조항만 있습니다.
- Q.** 민원, 휴전 불가 등의 사유로 정기검사 불가 시 대응 방법은?

A.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 미시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면책 조항은 없습니다. 정기검사 시행이 불가한 경우, 조속한 산업부 협의를 위해 정기검사지침[4.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본사에 결과 보고해야 합니다.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KEPCO Renewable Energy

시장형 공기업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회사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카드뉴스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요약

제7조(사업의 허가)

③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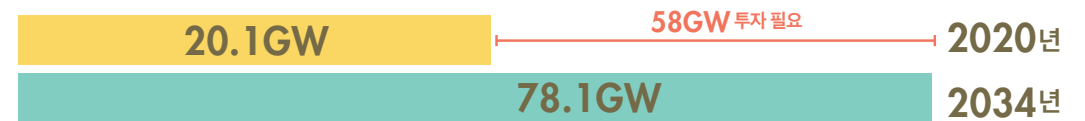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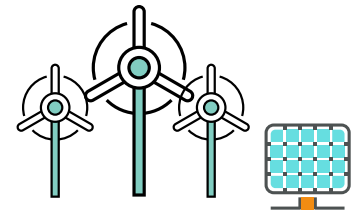
Q.

신재생 발전사업의 현재는?

A.

소규모 사업자*중심의 사업 개발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미미!

소규모 사업으로는 2034년까지 신재생 발전설비 78GW(설비비중 40%)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1MW 이하 소규모 사업이 98% 차지(19년 말 기준)

2



Q.

신재생 발전사업을 한전이 직접 하려는 이유는?

A.

한전은 현재도 SPC 형태로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면, 사업비 절감*등 더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한전 25% 발전 6사 각 12.5%	한전 29% 중부발전 26%
희망빛발전	햇빛새싹발전소
한전 50% 발전 6사 각 8.3%	한전 50% 발전 6사 각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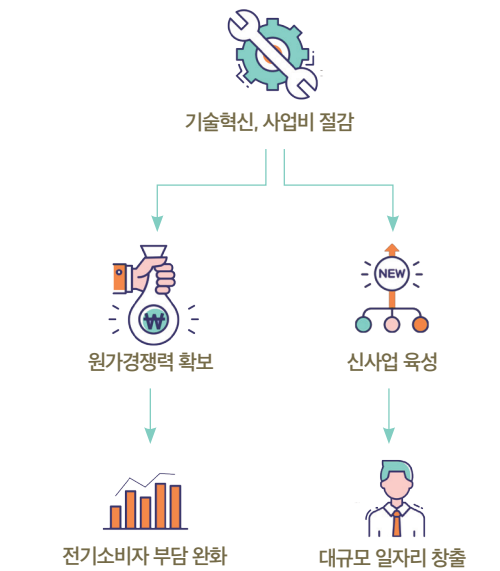
*신안해상풍력(1.5GW)사업을 한전이 직접 추진하면 최대 1.8조원의 사업비 절감 가능(이자비용 및 법인세 등)

3



대규모 신재생 R&D 투자역력 역량, 조직 보유!

기술혁신*과 사업비 절감 등 최고의 원가경쟁력으로 전기소비자의 부담(요금인상)을 완화하고 신사업을 육성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예시] 한전 전력연구원 석션버켓 설계 설치기술 '2019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4

KEP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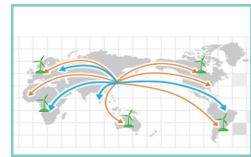
Q.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로 발전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A.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개선



한전의 브랜드 및 신사업 모델을 활용한 국내 연관 기업과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



항만배후단지* 개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재, 부품, 장비 등 연관 기자재 공급망 국산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제 성장 견인

*해상풍력 단지개발 시 관련 기자재 공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단지 및 100m 이상 크기의 블레이드 등을 대형 선박으로 운반할 수 있는 항만 조성이 필수적임

5

KEPCO

Q.

발전사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영역 침해에 대한 우려는?

A.

발전사가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업은 발전사가 수행하고,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소규모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전은 투자 규모가 크고 한전 보유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등만 직접참여*합니다.



사업규모 및 범위 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반영)

*예시 : 발전사와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자금조달, 인력 또는 기술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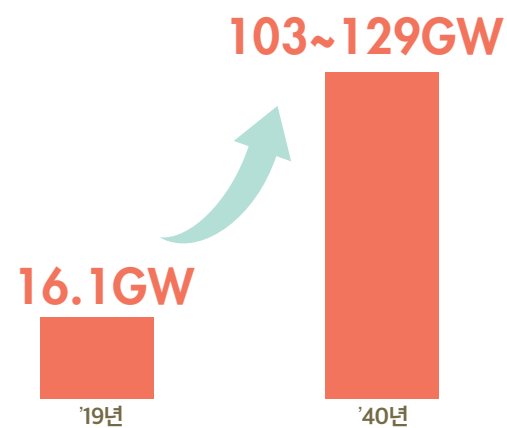
KEPCO

향후 20년간, 신재생 발전 시장은 10배 가까이 성장합니다!

한전은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참여를 통해 국내 신재생 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재생 발전설비 증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4030 시나리오' 기준



7

KEPCO

Q.

계통사업자인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에 따른 망 중립성 유지 방안은?

A.

한전은 발전사업자들의 공정한 송배전망 이용과 차별 금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불법적 망정보 이용 법적처벌 강화	재생에너지 연계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공용 송전망 신설·보강 비용 한전 전액 부담
'20.2월	'20.1월	'17.4월
송배전사업자의 망 관련 정보를 활용한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전기사업법 개정)	지역단위, 설비별 여유 용량 및 접속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 중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 제공	신재생 발전사업자 간 송전망 접속 차별 제거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용량과 무관하게 공용 송전망 접속을 허용하고 있으며 (무제한 접속 허용) 공용 송전망 보강 필요시 관련 비용은 전액 한전 부담 (보강 비용 한전 부담)	

8

KEPCO

이 밖에도 망 중립성 강화를 위해 한전은 송전망 계통 정보 전면 공개 추진!

송전망 계통 여유 정보 가이드맵 구축(~'21.7월)	재생에너지 즉시 연계를 위한 선제적 계통보강 확대	재생에너지 공정성 검증위원회(가칭) 신설 추진
<p>미래 전원계획</p> <p>최적의 전국 전력계통 여유정보 제공</p> <p>설비 보강계획</p> <p>신재생 연계계획</p> <p>한전과 발전사업자간 정보격차 해소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p> <p>정보공개 확대</p>	<p>한전 사업 공정성 검증</p> <p>한전 참여 사업의 계통접속, 공용망 투자 적정성 검증</p> <p>투명한 검증 강화</p>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는 국민(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경제성장 기여, 발전사업자 사업기회 제공 등의 효과를 내 국민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이는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EPCO Tech Educational Foundation



글 _ 이윤진 한전공대설립단 설립총괄실 대리

전 세계가 글로벌 에너지 리더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 장기적 관점에서 한발 앞서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전, 정부, 지자체가 힘을 모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이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 육성, 혁신기술 개발, 에너지 생태계 구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할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알아보자.

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주요한 미래 먹거리로 에너지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공급은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융복합 공학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 연구역량으로 에너지 산업과 국가발전을 견인할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졌다. 더불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대학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에너지 분야 고급기술과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산학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이 추진되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미래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강소형 혁신대학으로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을 추구한다. '글로벌 에너지 연구와 창업의 허브이자 Open Platform'이 설립모델이며, 대학의 연구 성과물이 창업·특허 등 다양한 형태로 국가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고, 다시 대학으로 연구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연구 성과는 한전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미래 수익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첨단·융복합 에너지 연구와 창업으로 에너지 산업 혁신을 주도할 오픈 플랫폼

산업 파급력과 기술 장벽이 높은 에너지 기술 연구에 도전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업 파급력과 기술 장벽이 높은 5개 분야, 에너지 AI, 에너지 신소재, 수소에너지, 에너지 기후변화·환경,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를 중점연구 분야로 선정했다. 단기 성과 위주의 소형과제 대신, 도전적 연구를 긴 호흡으로 수행하며 혁신 기술 개발을 담당할 것이다.

에너지 연구 인력·자원의 결집과 자유로운 연구문화 조성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수와 연구원은 특정 연구소에만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복수의 연구소에서 활동하게 된다. 전략 및 성과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조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다양한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글로벌 에너지 연구 허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디어와 성과를 창업으로 연계하여 혁신 가치 창출

구성원의 아이디어와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고, 기업 성장주기에 따른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 스튜디오 설치는 물론 창업 교육 프로그램, 마케팅·투자 유치 등의 지원 조직을 집중육성 한다. 지적 재산권이 기술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구성원과 산업계의 소통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려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주요 내용

KEPCO Tech Educational Foundation

- ✓ 국가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 ✓ 대학 자율성 보장과 재정지원, 설립 특례 등을 규정

법인격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과학기술원과 동일)	· 고등교육법 상 대학과 동일한 고등교육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나, 대학 설립·운영에 있어 고등교육법의 예외적 법적 지위 확보
대학 자율성 보장 교원·학생선발, 학사운영 등 자율성 확보	· 지원·조정 : 산업부·한전이 지원·육성하고, 산업부 조정·감독 정관에 따라 선임, 교육부 등의 및 산업부 승인 · 총장·임원 : 총장이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용 · 학생선발 : 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을 총장이 결정 · 학위과정 : 학위과정별 학위 수여, 학사운영 등 총장이 결정
재정지원 신속한 개교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출연금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대학의 시설·설비,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출연금을 지급 · 국·공유재산의 양여 등 :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공유재산과 물품을 양여, 무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
설립특례 신속한 개교를 위해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 등에 대한 특례 규정 (대통령령에 위임)	· 임대교사 허용, 교사·교원의 확보 시기(개교 12개월 전~개교일 전) 및 확보기준(면제정원~입학정원) 등 반영 예정

미래가치를 창출할 융·복합 고급인재 양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기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 향상에 집중한 학생 중심의 교육

학생들은 탐구기반학습(Inquiring Based Learning)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키우게 된다. 교수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기르고 다양한 역량과 지식을 습득해나갈 수 있도록 코치 또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맡는다.

폭넓은 융·복합을 위한 Residential College 도입

교양교육이나 취미활동 등 전인교육은 Residential College(RC)를 통해 보충한다. RC는 학업과 생활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시스템으로, 팀 프로그램과 연구·창업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풍부한 지식을 쌓으며 새로움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소통·협력을 강조한 캠퍼스와 시공간 제약 없는 학습 환경 구축

학생 스스로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물입형 공동체 속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캠퍼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PBL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강의실, 학습과 생활을 통합한 RC형 기숙사, 최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형 온라인 교육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대 법 제정으로 설립의 법적 토대 마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2020년 10월 발의되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법 제정은 대학의 자율성 확보,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신속한 개교를 위한 설립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아, 학교 발전의 법적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KAIST, UNIST 등 국내외 과학기술원들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 비해 유연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특수법인 전환 등 많은 일정이 남아 있다. 교원 및 직원 채용, 학생선발과 교과 개발, 학사설계 등 개교를 위한 다양한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사전공사에 들어간 캠퍼스 건설의 경우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개교 핵심 시설은 다가오는 5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2월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2022년 3월이면 드디어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대의 성공을 위한 우리 회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사우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 개최



우리 회사는 3월 11일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께 본사 한빛홀에서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소특구 비전 선포식은 전남·나주 강소특구지역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비전선포식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김종갑 한전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등 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김종갑 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숙철 기술혁신본부장의 강소특구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에 이어 강소특구의 신규 연구소기업 명판 전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5년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했고, 2019년에 6개 지역, 2020년에 나주 포함 6개 지역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다.

전남·나주 강소특구는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혁신산단 일원에 지정되었는데, 추후 한전공대 클러스터 부지도 강소특구 부지로 확장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분야는 지능형 태양광, 신재생 O&M 및 에너지 저장 분야로 한전은 기술 핵심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기술 발굴 연계, 기술창업 육성, 강소 특구 특화성장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5년간 350억 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한전의 기술사업화가 기술개발, 기술이전까지의 한 방향 프로세스였다면, 강소특구는 기술 출자,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창업 육성 및 성장지원을 통해 성장의 벽을 깨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사업모델이다.

강소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은 법인세는 3년간 전액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재산세는 최대 7년간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가 감면되며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국민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하는 「한전 국민 감사관」제도 도입

우리 회사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한전 국민 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

3월 19일 공개모집을 시행한 「한전 국민 감사관」제도는 전력 서비스와 제도에 관한 폭넓은 의견 청취를 통해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총 10명(일반 국민 6명과 협력사 4명)의 국민 감사관을 선발했다.

신청 자격은 에너지산업, 감사업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무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전력산업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 해당 단체 추천자 등이며, 양성평등 및 여성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선발인원의 50%를 여성으로 선발했다. 선발된 한전 국민 감사관은 고객 접점 서비스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거나, 한전과의 계약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와 부당한 업무 처리 경험, 개선의견 등을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1년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소기업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추경 사업실시

우리 회사는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총예산 2,202억 원)」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3월 25일에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 회사는 이번 정부 예산사업 수행자로서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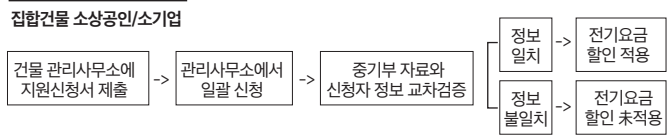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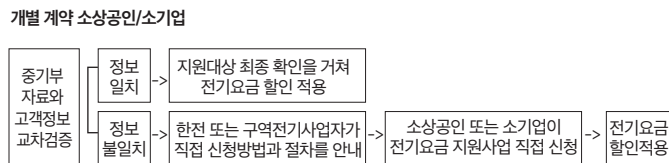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2021년 1월 2일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 금지(18.5만 개) 또는 영업 제한(96.6만 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 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은 3개월(4~6월)간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되며,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 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는다.

한편, 전력 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2020년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참고하여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월 지원금액 상한선은 원칙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전기요금 감면 소요 재원 전망에 따라, 최종 확정된 상한금액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를 통해 안내한다.

우리 회사는 이번 지원을 통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 절차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우리 회사는 3월 25일 본사 비전홀에서 정부 등 주주와 김종갑 한전 사장 등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4조 863억 원(연결기준)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2020년 결산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4월 말까지 주당 1,216원의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 회사는 김태욱 전 광주 전남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전력그리드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대한전기협회와 에너지 절약 및 소비자교육 업무협약 체결



우리 회사는 3월 18일 대한전기협회²⁾와 에너지절약 및 소비자교육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전기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성 영업본부장과 김동수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의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합리적 전기사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 협약내용에는 ▲전기 소비자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에너지 교육 시행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한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공동 추진 ▲전기의 가치 교육 홍보를 통한 소비자 행동변화 유도 상호 협력 ▲각종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이 있다.

해빙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분야 안전 대진단」추진



우리 회사는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분야 안전 대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력 분야 안전 대진단은, 기온 변화로 지반이 약화 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이 증가하는 시기에 집중적인 전력 설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와 정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형의 전력 설비와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급경사지 등 지반 유실 위험이 있는 지형의 전력 설비를 파악하여 경사지 균열·침하 여부와 전력 설비 구조물 파손·변형 여부를 점검하고, 지중설비(맨홀, 전력구 등) 인근 도로와 보도 상태를 점검했다. 대규모 굴착 현장 인근의 전력 설비를 순시 점검하고, 토사 붕괴 우려 지점의 축대 등 안전 보호 시설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봄철 건조·강풍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설비점검을 시행했다. 또 산악지역을 경과 하는 1,772개 선로에 대해 과학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우선 진단·보강하고, 전력 설비 인근 수목과 여름철 급성장 예상 수목에 대해 사전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산불 예방 비상 상황 관리를 강화하여 상황 근무 인력 928명을 보강하고, 산림 재해 포털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림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상황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했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제주시 제공 MOU 체결



우리 회사는 3월 25일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SK텔레콤 간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 체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제주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한전과 SK텔레콤이 협업하여 제주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전력 사용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통신 데이터와 융합하여 1인 가구의 안부 이상징후를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전력 사용량이 평소와 다르게 급감하고 핸드폰 통화량과 문자 발송 횟수가 전혀 없을 때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한전과 SK텔레콤은 전력 데이터와 통신데이터 수집,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제주시는 서비스 수혜희망자 모집, 개인정보 동의서 확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2019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서귀포시, 시흥시 정왕본동에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제주시와 MOU를 통하여 제주도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복지시설 지원

우리 회사는 3월 29일 광주지역 여성,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7곳에 1천 4백만 원 상당의 물품과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광주지역의 노인, 장애인, 여성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회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임시 거주를 위해 ‘광주여성의전화’에서 운영 중인 ‘초록누리 사업’ 주거 지원시설을 방문하여 가전제품과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전달하였다.

한전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러브펀드 등을 활용하여 전국 313개 사회봉사단이 지난 1년 간 노인,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여성 등을 위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311건(13.7억 원 지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사회공헌 추진 목표를 “국민이 공감하는 에너지복지 중심 사회공헌 구현”으로 정한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1) 대전(05), 광주·대구(11), 부산(12), 전북(15)
2) 대한전기협회 : 전기·에너지 기업, 학회 등 235개 법인 포함 690여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전력산업계의 중심점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1965년 창립)으로 전력산업, 전기안전 등 전반에 대한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설비 기술기준·표준 확대 및 고도화, 전기산업 발전 기술기반 구축, 대내외 교류·협력, 에너지 교육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Retail Technology



쇼핑의
풍경을 바꾼

리테일
테크

지난 3월 11일,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은 놀랍게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를 이은 국내 기업 시가총액 2위에 위치했다. 이를 목격한 많은 이들이 의문 부호와 감탄사를 동시에 뱉었다. 과연 쿠팡의 가치가 저 정도인지, 그리고 국내 내수 유통시장의 가치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소매 업계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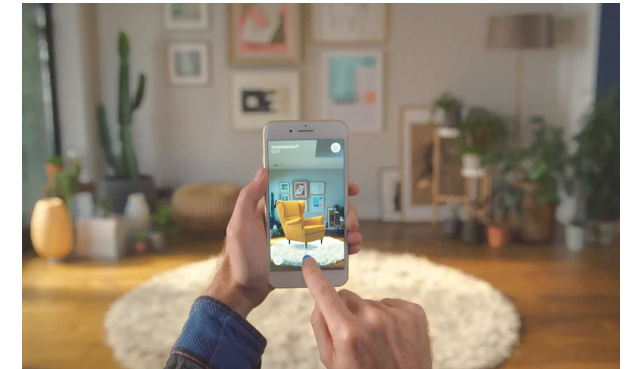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언택트 트렌드는 쿠팡을 필두로 한 IT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성장을, 오프라인 리테일 기업들에게는 보릿고개를 맞닥뜨리게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1년 3월 오프라인 소매 산업은 보복 소비의 호황을 마주하고 있다. 명품 매출이 크게 늘었음은 물론이고, 2월 말 여의도에 오픈한 '더현대서울'은 3.1절 연휴 기간 일 평균 8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이는 국내 1위 백화점인 신세계 강남 수준의 매출이다). 그리고 이 극심한 연교차는 동시에 소매 산업이 맞닥뜨린 거대한 변화의 격랑이기도 하다. 그 변화의 핵심에 바로 '리테일 테크'가 있다. 소매 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반을 일컫는 리테일 테크를 크게 분류해보면, '한계의 극복'과 '흡수를 통한 재창조'로 나눌 수 있다.

01 __ 한계의 극복 사람과 시간의 흔적을 감춰라!

오프라인 커머스는 본질적으로 매장 방문을 위한 이동,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오프라인 커머스 기업들의 화두는 이 특징을 감추는 것이었다. 2016년 처음 등장한 무인 매장 '아마존 고'는 더현대서울의 '언커먼 스토어', 세븐일레븐의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이마트24의 무인 편의점으로 재탄생했다.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운영 시간의 제약도 극복할 수 있는 이들 매장 형태는 점차 오프라인 유통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에서의 주문을 오프라인으로 흡수하기 위한 시도들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새벽 배송을 넘은 당일배송 서비스가 등장할 예정이고,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미국에서는 '커브드 사이드 픽업(온라인으로 주문한 고객의 차 트렁크에 물품을 실어주는 서비스)', '인홈 딜리버리(고객의 냉장고까지 물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코로나 이전부터 수년간 지속되던 온라인 커머스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 갈고 닦아온 칼을 꺼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존 웹서비스(AWS)기반의 응용 기술과 인공 지능, 머신 러닝 등을 바탕으로 구현된 '언커먼 스토어'. QR 코드를 통해 입장하면 수백 개의 센서가 구입하려는 물건을 자동으로 결제해준다. (출처 : 더현대 서울)



가상으로 가구를 공간에 배치할 수 있는 증강현실(AR) 앱 '이케아 플레이스' (출처 : 이케아)

02 __ 흡수를 통한 재창조 지불 방법과 공간의 제약을 혁신하라!

한편에서는 온라인 커머스의 장점을 흡수하여, 오프라인에 적합한 형태로 재창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제에서의 혁신. 현금이나 실물 카드 중심으로 이뤄지던 결제가 어느새 카카오페이 등의 모바일 페이먼트로 전환된 것이다. 단순히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속에는 오프라인 결제도 데이터의 영역으로 전환됐다는 변화가 숨어있다. 이미 우리는 위치 정보와 오프라인, 온라인 결제 정보가 결합된 알고리즘의 터널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 오프라인의 확장은 물리적인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케아는 지난 2018년부터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구를 실제로 배치해볼 수 있는 증강 현실 서비스인 '이케아 플레이스'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국내외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에서는 실제로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고객의 체형에 맞춰서 제품을 추천해주는 스마트 미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쇼핑의 풍경, 어떻게 바뀔까?

서두에서 주지했듯이 지난 1년간 오프라인에서의 접촉은 곧 리스크였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접촉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됐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접촉과 대면 기반의 사회는 2019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곳에서의 뉴노멀은 '불필요한 접촉은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접촉으로도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는 곧 지난 1년간의 언택트(Untact) 보릿고개를 새로운 역량으로 재창조해낸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기업은 '검색을 무기로 오픈마켓을 장악한 네이버', '전 국민 메신저 플랫폼 안에서 수많은 콘텐츠를 연결한 카카오', '전국을 촘촘하게 엮은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1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쿠팡'과 경쟁하며, 오프라인 리테일이라는 전장을 누비게 될 것이다.

리테일 테크란?

'Retail + Technology' 즉 '유통+기술'을 지칭하는 용어로 유통 산업의 도메인 지식과 결합된 최신 테크놀로지 세트를 의미한다. 개인화, 쿠폰, 결제, 데이터 분석, 검색 및 가격 비교, 제품 추천, 물류 및 택배 배송 등의 분야를 위한 기술들이 포함된다. (정연승, '유통의 미래, 신유통과 리테일테크')

Remember THE FIRST TIME?

누구에게나 처음의 설렘이 있었다. 지금 나아가는 목표를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설렘의 순간을 담은 애벗 그레이브스의 그림 <종잣돈>이다. '티끌 모아 태산'은 멀어 보여도 원대한 목표들엔 모두 '처음'이 있었다. 당신의 처음을, 설렘의 나날을 떠올려보자.

처음의 설렘을

기억하세요?



<종잣돈(The Nest Egg)> | 1910 | 애벗 풀러 그레이브스 | 81.2x116.8cm

두근두근, 통장 확인하기

“얼마 모였어? 이자는 얼마나 붙었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은행 계좌를 실시간으로 접근하지 못하던 시절, 통장에 주기적으로 모은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은 은행에 방문했다. 불과 10~15년 전만해도 그랬다. 약 110년 전 미국, 젊은 부부는 일년간 모은 적금을 확인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왔다. 통장을 확인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고생하면서 아껴 모은 돈을 확인하니 함박웃음이 절로 지어진다.

“당신이 진짜 고생했어. 우리 오늘은 분위기가 좋은 데서 기분 한번 날까?”
“그럼~ 나 지난번에 봤던 와플 맛있어 보이던 브런치 가게!”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볼도 분홍색으로 상기되어 있다. 정열의 빨간색이 순수한 흰색을 만나 수줍은 분홍색이 되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건 가장 높은 신뢰의 색이라 불리는 파란 색의 통장. 이 두 사람의 앞날에도 푸르른 희망이 엿보이는 듯하다. 이것은 미래를 함께 꾸려나가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다. 함께 온 강아지도 통장 속 내용이 궁금한 것 같다. 평소와 달라 보이는 부부의 모습에 긴장했는지 꼬리를 말아 다리 사이에 넣고 통장을 올려다보고 있다. 주인님들이 신났으니 웬지 집에 가면 맛있는 간식이나 올 것 같은 기대도 된다.

지칠 때쯤 다시 꺼내 보는 설렘의 순간

오른쪽 뒤편에는 노부부가 서로 마주 보고 앉아있다. 함께 한지 수십 년이 지난 것 같은 이 노부부의 손에도 파란 색 통장이 들려있다. 노부부도 오늘 적금을 확인하러 온 것 같다. 바짝 붙어 통장에 집중하는 젊은 부부처럼 설레는 모습은 아니나, 그들이 떨어져 앉은 거리만큼 여유로운 모습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종잣돈이 커지는 것은 점차 당연한 일이 되었을 수도 있다. 신나서 들떠있는 젊은 부부를 보며 노부부는 속삭였을 것이다.

“저 친구들 봐.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지.”

미국의 인상주의 화가 애벗 풀러 그레이브스(Abbott Fuller Graves)는 장식적인 야외 정원과 꽃 그림을 주로 그린 작가다. 따뜻하고 향기로운 정경이 담긴 그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컬렉션 작품인 <종잣돈>엔 선명한 스토리텔링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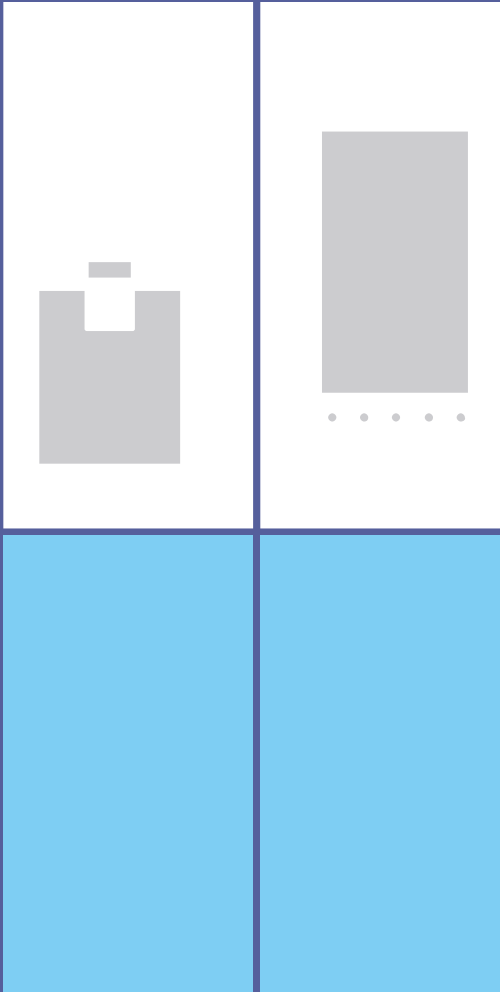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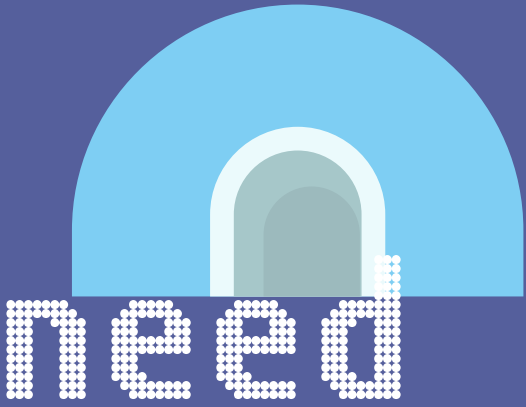
젊은 부부의 파란 통장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원동력이 되는 희망, 낙관하고 싶은 미래가 담겨있다. 혹여나 지금의 삶이 조금은 버겁다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자꾸만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던 처음의 감정을 떠올려보자. 분홍색이 가득했던 시간이 내게도 분명 있었다.

냉장고의 역사로 보는

‘필요’와 ‘소유’의 인문학

최근 ‘콜드 체인’(저온유통 체계)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만큼이나 온전하게 유통하는 기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다. 인류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진 콜드 체인 기술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한때는 사치품에 불과했던 냉장고가 어떻게 필수품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냉장고에 담긴 인류 욕망의 콜드 체인을 살펴본다.

purchase



MAKE HISTORY

인류 일상 송두리째 바꾼 냉장고

몇 해 전 한국에 상륙한 수제 맥주 열풍의 근간에는 ‘콜드 체인(Cold Chain)’이 있다. 빛과 열에 약한 맥주는 온도 유지가 생명인데, 미국의 수제 맥주사들이 콜드 체인 유통으로 맛의 변질을 최소화해 수출에 나선 것이다. ‘변형되지 않는 맥주 맛’이라는 마케팅을 취향을 타고 문화가 되어 전 세계를 강타했다. 짧게 보면 약 80년 전, 길게 봐도 150년 전이야 등장한 콜드 체인 덕분에 인류의 음식 소비 습관은 물론 식생활, 요리법 등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볼 때 잘나에 불과한 시간 동안 냉장기술 때문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식문화와 수요가 생겼다는 뜻이다.

2012년 영국왕립학회는 “식품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은 냉장기술”이라고 밝혔다. 냉장기술이 현대사회의 식량 공급, 식량 안보, 식품 안전에 필수라는 이유에서였다. 수천 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보존해온 인류에게 냉장고의 발명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속한다. 기실 냉장고가 보편화된 건 반세기밖에 되지 않았다. 식품을 오래 보관할 때 발효와 건조 방식이 더 선호됐고, 사람들이 얼음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냉장기술이 처음 등장한 건 19세기 유럽이었다. 얼음의 시원한 감촉과 신선한 식품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됐다. 1920년대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냉매 압축기를 가정용 기기에 맞게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가정용 냉장고의 시대가 본격화했다.

CREATION

채우는 게 인지상정! ‘필요’를 창조하다

“새로운 가족이 당신의 삶을 화사하게 만들고, 주방 색을 아름답게 꾸밀 것입니다!”

1950년대 한 TV 광고에 등장한 문구다. ‘인류의 새로운 가족’을 자처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냉장고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방은 온갖 허드렛일을 소화하는 작업 공간이었다. ‘냉장고’라는 하얗고 세련된 가전제품이 주방을 깔끔하게 변신시키자 사람들은 다시 주방을 찾기 시작했고, 냉장고는 ‘사치의 상징’에서 ‘생활필수품’이 됐다. 20세기 냉장고 제조사들은 판매 촉진을 위해 ‘차가운 음식’ 제조법을 담은 요리책도 함께 배포했다. 냉장고가 사회의 주류 소비재가 됐다는 신호였다. 부유층의 사치품이었던 냉장고는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 가구의 97%가 보유한 전자제품이 됐다.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 보관과 ‘매끈한 디자인’을 강조한 냉장고 제조사들의 집념 어린 마케팅의 결과였다. 뿐만 아니다. 비좁았던 주방에 큼직한 냉장고를 들일 수 있도록 주택 설계에도 혁신이 이어졌다. 지구촌 수억의 가정에서 냉장기술을 보유하게 되자 식품 유통 형태도 변화했다. 적정온도에서 보관하면 장기간 상하지 않는 가공 식품들이 줄지어 등장했고, 육류도 필요한 만큼 도축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한 만큼 수요로 밀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어찌 보면 겨우 ‘냉기’ 하나 보관할 수 있게 된 것뿐인데, 그 차가움이 인류에 끼친 영향은 무척이나 강력했다.

냉장고와 콜드 체인은 식품 무역 시스템도 바꿨다. 저온유통이 활성화하면서 예전에는 비싸서 못 먹던 음식이나 제철에만 겨우 맛보던 음식을 계절과 지역에 상관없이 즐기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지 생산자들은 시장가격 지배력을 크게 잃게 됐고, 반대로 머나먼 나라의 농부들은 타국에 진입할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

FUTURE

미래를 욕망하게 하다

냉장기술 덕분에 인류는 식생활과 소비습관은 물론 주거 구조나 산업 전반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냉장기술은 양조작업이나 플라 스틱 생산, 의약품 개발, 백신 보관 등 비식품 산업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D-웨이브 양자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기의 발열 현상 제어,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실험 등 첨단기술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극저온에서 세포 조직 샘플을 냉동하거나 페니실린과 같은 주요 의약품 개발을 가능케 한 것도 냉장고다. 우주선, 댐 건설, 탄약 공장, 대규모 과학 실험 등에서도 냉장고의 힘은 막강하다.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냉장고는 이제 미래로 향한다.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 냉장고, 환경 보호와 에너지 효율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미래형 냉장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조만간 한 수 위 냉장기술에 힘입어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식량이 탄생할 수도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인체를 급속도로 냉각해 냉동인간을 만들거나 의료적인 목적에도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필요’에 의해 탄생한 냉장고와 냉장기술은 필연적으로 점차 발전할 수밖에 없다. 차가운 얼음, 신선한 음식, 쾌적한 주방에 대한 ‘필요’가 지난 반세기 동안 혁신적인 새 역사를 만들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또 다른 필요가 인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며 ‘쿨한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Monthly Magazine of KEPCO

KEPCO

45

ON AIR
팬데믹은 세계를 어떻게 바꿀까?

46

KEPCO 버스킹
어떤 어른의 영웅 놀이

47

간식비를 쓴다!
맛있는 간식이 있는 힐링 타임

48

人STAR★GRAM
향기로운 '4월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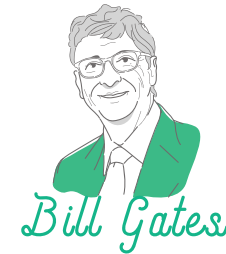
구독의 이유
집콕러를 위한 색다른(!) 영화 채널

On Air

팬데믹은 세계를 어떻게 바꿀까?



How the pandemic will shape the near future



팬데믹에 대한 최고의(또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빌 게이츠와 TED의 대표 크리스 앤더슨이 대담을 나눴다. 팬데믹과 경제, 음모론, 백신 이야기는 물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기부자들의 행동과 인식 향상에 대한 빌 게이츠의 의견이 담겨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회복과 재건 등 '이후'를 생각해야 하는 이 시기에 꼭 맞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 영상이 촬영 및 공개된 것은 2020년 6월이다. 그사이 나쁜 소식도, 반가운 소식도 많았지만, 대화 속에 언급된 백신의 '가능성'은 이미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도착해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미래를 한결 낙관할 수 있다. 그러나 낙관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누구든 가능한 선에서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QR코드를 찍으면 강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력용어 퀴즈

다음의 전력용어가 어떻게 순화 되었는지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

- 1) 트립 → ()
차단기의 차단 동작을 나타내는 것
① 고장
② 차단
③ 반사
- 2) 공장 → ()
송전이나 배전 선로 등에서 일정한 구간의 수평거리
① 선로 길이
② 첩탑 높이
③ 전선 굵기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지난호 정답
1) ③ 2) ②

당첨을 축하합니다!

퀴즈 당첨자

- | | |
|---------------------|----------------------|
| 변지현 (인천본부 전력관리처) | 김승현 (경영지원처 경영지원부) |
| 김병태 (강원본부 평창지사) | 남하영 (서울본부 강북성북지사) |
| 김정웅 (에너지전환처 신재생사업실) | 성아린 (부산울산본부 동부산전력지사) |
| 문선일 (경기북부본부 연천지사) | 최성욱 (경북본부 봉화지사) |
| 최정민 (대구본부 포항전력지사) | 박가현 (기획처 기획조정실) |
| 한지연 (경남본부 하동지사) | 박정식 (광주전남본부 완도지사) |
| 김기철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 유강희 (대전세종충남본부 기획관리실) |
| 정숙은 (남서울본부 강서양천지사) | 심규태 (강원본부 화천지사) |
| 배하늘 (경기북부본부 양평지사) | 강결 (충북본부 보은지사) |
| 김민지 (전북본부 무주지사) | 황성현 (경남본부 남해지사) |

설문조사 당첨자

- | | |
|---------------------|-----------------------|
| 김승태 (충북본부 전력사업처) | 정유진 (광주전남본부 보성지사) |
| 김성일 (대구본부 전력사업처) | 황형철 (대전세종충남본부 청양전력지사) |
| 이슬이 (해외신사업처 신재생개발실) | 권신형 (전북본부 정읍지사) |
| 김유선 (인천본부 제물포지사) | 이하영 (전력연구원 연구전략실) |
| 송현민 (남서울본부 전력관리처) | 유효운 (부산울산본부 남부산지사) |

어떤 어른의 영웅 놀이

시그널 중독자

*필자의 요청으로 익명 게재

KEPCO
버스킹

2021
APRIL

제가 요즘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탈리아 마피아 보스의 양아들이자 마피아 조직의 컨설리에러라는 주인공 설정도 나름 재미있고 속도감 있는 전개도 좋지만, 저를 매료시키는 요소는 주인공의 영웅적인 능력치입니다. 부조리한 카르텔에 맞서 통쾌한 응징을 해대는 주인공의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영웅 설정에 열광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꿈에 대한 대리만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적 저의 꿈은 'Hero'였습니다. 만화영화 마징가 제트, 로봇 태권브이처럼 정의를 위해 불의한 악의 세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Hero 말이죠. 한창 젊은 시절에 저는 영웅은 아니더라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불혹을 훌쩍 넘긴 지금에서야 바라보는 저의 모습은, 그저 그런 소시민이랄까요. 조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고민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가지신 분들이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무엇이든 결정하곤 합니다. 조직 속에서 제가 하는 일은 그저 모두가 "네"라고 할 때 "네"라 하고, 모두가 "아니오"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일까요? 미운 일곱 살 아들도 여전히 영웅 놀이에 심취해있더군요. 아들 방에 진열된 많은 로봇은 아들의 세계에서 모두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우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들이 그림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림 속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가 슈퍼맨 망토를 두르고 힘차게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내가 아빠 그린 건데 잘 그렸죠?"라며 자랑스럽게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세계에서 저도 영웅의 반열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영웅이 되기로 말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부조리에 맞서는 영웅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내 일이 아니면 눈을 감습니다. 물론 수직적인 권력 구도로 총총히 짜인 조직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게나마 용기 내는 연습을 시작하려 합니다. 눈을 질끈 감는 대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연습이요. 영웅도 분명 걸음마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거대한 부조리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드라마의 영웅처럼 용감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도 자라면서 저처럼 어릴 적 꿈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발견해 갈 테죠. 그 때 우리 아들에게 아빠는 좀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용기 내는 연습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라 기억되고 싶습니다.



맛있는 간식이 있는 힐링 타임

문세진 전북본부 재무자재부

간식비를
쓴다!

2021
APRIL



안녕하세요. 전북본부 재무자재부 신입사원 문세진입니다.

작년 5월에 입사해 한전의 가족이 된 지 어느덧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도움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좋은 선배님들을 만난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거나 회식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자리를 갖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선배님들께 항상 받기만 했기에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다가 맛있는 간식을 통해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간식비를 쓴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업무에 지쳐있던 선배님들과 잠시나마 즐겁게 웃으며 간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 직원들에게 즐거운 에너지가 제대로 충전된 시간이었어요! 코너를 통해 저의 감사한 마음을 선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어서 참 기뻐했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신 월간 <KEPCO>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 행복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재무자재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맛있는 간식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4월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Restau ★ journal

이 코너는 KEP-CNA와 KEPCCO-EP 사업소 소식에서抜해하여 게재됩니다. 사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고·사진 보내실 곳 : dasom.shin@kepcco.co.kr
문의 : 061-345-3128

충북본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충북본부가 나섰다!
우리 본부는 희망의 꽃 1,000다발 나눔 행사를 열어, 각 부서 사무실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나눠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화훼농가도 돕고, 꽃 보며 힐링도 하고! 정말 '일석이조'죠?

#충북본부 #화훼농가지원 #희망의_꽃
#꽃보며_힐링하세요

북부산지사



우리 지사 옥상정원 <해마루>를 소개합니다!
해마루는 '해와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직원 대상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과장님께서 새로 조성된 옥상정원을 위해 직접 제작한 멋진 서각 작품도 기증하셨다!
따사로운 햇빛이 가득 드는 <해마루>로 놀러 오세요~

#북부산지사 #하늘정원 #해마루
#우리지사_힐링스팟 #놀러오세요

평범한 듯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좋았던 일, 반가웠던 사람, 뿌듯했던 순간들을 자주 상기해보자. 우리 걸을 지나가는 짧은 봄날을 좋은 것들이 가득했던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전력연구원



전력연구원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지역공공체 활성화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문지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후원했다. 작은 후원이지만 어린이들의 독서력 향상과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 전력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꼭~ 지속할 예정이다!

#전력연구원 #작은도서관 #도서후원
#지역공공체_활성화 #사회공헌 #상생

인천본부



안전한 백신접종은 인천본부에게 맡기시라!
우리 본부는 인천 선학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전력설비를 점검했다. 선학체육관에서는 3월부터 인천지역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으로, 직원들은 전력구 케이블과 지상개폐기, 변압기 등을 점검했다.

#인천본부 #안전한_백신접종
#전력설비점검 #코로나19 #내년엔_제발_안녕

강원본부



우리 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도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가방·의류 후원금 600만 원을 아동전문 복지기관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전 직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러브펀드를 재원으로 실시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떠한 다른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강원본부가 되겠다!

#강원본부 #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어려울수록_서로_돕기

대전세종충남본부



우리 본부는 노사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직원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 '굿모닝 To U' 행사를 실시했다. 사옥 입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분 키트와 견과류를 배부하며, 감사 인사도 서로 나누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전해보면 어때요? 감사는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대전세종충남본부 #노사_상호존중의_날 #굿모닝
#감사나눔 #나눌수록_커지는_감사

김포전력지사



김포전력지사는 김포소방서와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화재예방 합동점검은 변전소와 전력구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훈련으로,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지점 탐지와 연소방지 설비 등을 확인했다.

#김포전력지사 #김포소방서 #화재예방_합동점검
#안전제일 #한전_안전하자

남원지사



우리 지사는 무고장 3배수 1,500일 2회 달성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시행했다. 우리 지사는 고장예방을 위해 담당선로 책임제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순시 지원팀을 구성해 열화상 진단 등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무고장 4배수 2,000일 달성까지 아자아자!

#남원지사 #무고장3배수 #고장예방
#담당선로_책임제 #내선로는_내가_지킨다

구독의
이유2021
APRIL

집콕러를 위한 색다른(!) 영화 채널

장신영 장흥지사 고객지원팀

“영화 보러 갈까?”

퇴근 후에 혹은 주말에 친구나 연인, 가족들과 마땅히 할 건 없고 심심할 때, 버릇처럼 내뱉던 말이 사라진 지도 1년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멀어진 만큼, 기대하던 영화들 소위 ‘불만한 영화’들도 줄줄이 개봉을 미뤄가며 저희와 멀어졌죠. 덕분에 영화관은 관객도 불만한 영화도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화관과는 멀어져야 했지만, 영화와도 멀어질 필요는 없겠죠.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추천하는 몇 개의 유튜브 채널과 함께 ‘불만한 영화가 없는’ 이 시간을 ‘꺼진 영화 다시 보기’의 시간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SUBSCRIBE

비슷한 영화 없나?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공감 지수 ★★★★★



마음에 꼭 박히는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속 배우가 했던 다른 작품, 감독의 다른 작품, 비슷한 결의 작품들을 찾아다니게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 추천 채널 ‘달콤살벌한 영화이야기’입니다. 하나의 테마나 캐릭터를 중심으로 여러 편의 영화들을 포인트만 잡아내어 소개해주는 채널로 간략하면서도 쏙쏙 박히는 소개 멘트가 인상적이지요. 취향 저격하는 소개 영상 한 편이면 나만을 위한 불만한 영화 리스트가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SUBSCRIBE

숨어서 보는 명화

B급 리뷰
B급 지수 ★★★★★



내 귀엔 듣기 좋은데, 딱히 유명하지도 않고 추천하기엔 뭔가 애매한 ‘숨어서 듣는 명곡’, 영화에도 당연히 숨어서 보는 명화가 있겠죠. 채널명 그대로 B급 감성 충만하면서도 묘하게 흥미를 끄는 영화들만을 골라 추천해주는 ‘B급 리뷰’. 딱히 홍보를 안 하기도 하고 때론 아예 영화관에 걸리지도 않아서 모르고 지나쳤던 숨겨진 영화들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영화 한 편을 요약해주는 꿀 같은 채널입니다. 결말까지 숨김없이 전달해주고 있으니,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고 영화 볼 시간도 없이 바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SUBSCRIBE

믿고 보는 걸작(?)

라이너의 컬처쇼크
‘웃픈’ 지수 ★★★★★



명작 중의 명작이 걸작이라면, 망작 중의 망작 또한 걸작이겠죠. 망했다고 해서 안 보기는 했는데 대체 얼마나 망한 건지, 뭘 얼마나 별로이기에 그리 혹평을 받는지가 궁금하다면 이 채널을 추천. 영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영화가 망하면 망할수록 리뷰는 재미있어지는 놀라운 경험도 선사합니다. 명작 영화를 이미 섭렵했다면, 이 채널과 함께 망작에도 한 번 도전해보세요.



힐링 메시지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론
살아있는 뭉친 것을 증명한다



오규원 시인의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11>의 한 구절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잔잔하게 물결을 만들며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바람과 비 같은 외부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그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계속해서 뻗어 나가고자 하는 응축된 생명력이 아닐까 합니다. 자연을 닮은 우리도 외부에서 불어오는 시련과 내면에서 생겨나는 여러 욕망들을 통해 하루하루 앞으로 걸어 나가며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해진 봄, 주변을 채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응축된 삶을 향한 힘도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